

'전주시 노인회관' 진북동 이전 개관

전주 시민 마음 건강 돌본다

효자동에서 이전 20일 개관... 노인 권익 신장·사회참여 촉진 위한 시설·노인취업지원센터 등 조성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주시 노인회관이 오는 20일 진북동에서 새 모습으로 개관한다.

대한노인회 전주지회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회관 조성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덕진구 팔달로 336(진북동) 건물에 총 사업비 6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4023.82㎡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됐다.

대한노인회 전주지회가 쓰는 1~3층에는 노인대학과 강당, 다목적실 등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들이, 4층에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각각 들어선다. 5~7층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된다.

전주시 노인회관은 642개의 경로당과 각 분회 간 정보교환과 협력, 여가·체육·건강 프로그램 지원·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노인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노인회관 개관에 앞서 18일 노인회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노인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무리를 꼼꼼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노인회관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노인회관 개관에 앞서 18일 노인회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노인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무리를 꼼꼼히 할 것을 당부했다.

건립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회관이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거

듭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각적인 복지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보건소에 마음치유센터 신설 25일부터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 회복을 도울 마음치유센터가 25일 문을 연다.

덕진보건소에 들어선 마음치유센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 맞춰 문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등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대상은 산후·육아 스트레스가 있는 여성, 만성질환 어르신, 취업준비생, 회복기 암 환자 등이다. 음악치유 프로그램으로 '내 마음의 소리가 공명해', 명상치유 프로그램으로 '내 마음을 깨워줘'가 준비됐고, 미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진짜 나를 보여줘', 원예

치유 프로그램으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22일까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대표번호(281-8576)로 신청하면 된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마음치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단체를 방문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센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가 코로나19로 잠깐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일상 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언제든 편히 찾을 수 있는 마음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공개 지지합니다"

전북지역 기독교 목회자·기독교인 153명, 지지 선언

전북지역 기독교 목회자와 기독교인 153명이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를 공개 지지했다.

18일 도내 전북지역 기독교 목회자와 기독교인 153명은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청년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맞섰고, 정치인의 삶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사람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살피고 기독교 불의에 맞섰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해 온 사람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와 무엇보다 정책공약집을 선보인 유일한 전주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게 평가하게 됐다



고 말했다. 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정책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

야 한다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의지가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독교 목회자와 기독교인 153명은 "조지훈 후보가 보여준 정책과 행동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기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야말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정의를 감찰처럼 흐르게 할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조지훈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공의가 흐르는 전주시,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전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사회혁신전주·성평등전주,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 수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 본상

전주시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인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에서 사용한 브랜드 이미지가 '2022년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는 아이에프(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 주관으로 1953년부터 열리는 세계 최

대 규모·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레드닷(Reddot),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가 포함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동브랜드 커먼즈 필드(COMMONZ FIELD)로 공모전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커먼즈 필드는 지역 활력의 주요 개념인 '커먼즈'와 현장 일대를 뜻하는 '필드'를 결합된 브랜드 이미지로, 이 이미지는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시는 성매매결집지에서 문화예술 마을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예술촌에 2019년 소통협력공간 1호점인 '성평등전주'를, 2020년 소통협력공간 2호

점인 '사회혁신전주'를 개소했으며, 현재 △사회혁신리빙랩 △성평등 커뮤니티·생활연구 △시민연구 실험 사업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아이에프(IF) 디자인 어워드 상을 계기로 사회혁신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4개월 만에 운영 재개

전주·전북·평화·학산·선녀머 종합사회복지관 5곳·장애인복지관 1곳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전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들이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휴관했던 전주·전북·평화·학산·선녀머 종합사회복지관 5곳과 장애인복지관 1곳

등 총 6곳이 4개월 만인 이날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말 등의 감염으로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식당 운영은 당분간 문을 닫아두기로 했다.

이들 5개 복지관은 점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접종자 가운데에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원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및 개인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노인복지관 6곳은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재개관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그간 힘들었던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다가여행자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97%

이용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전주 다가여행자도서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동안 다가여행자도서관 이용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자의 97%가 '도서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6%가 '다시 방문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방문 주요 목적은 힐링, 자료 열람, 여행 계획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책의 도시 정책으로 도서관 이용 빈도 증가와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예측 △음악 △역사 △한옥 등 특화 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특화도서관 조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서관 방문객의 거주지는 71%가 전주 지역이고, 기타 지역 거주자가 29%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다가여행자도서관은 지난 1월 20일 문을 연 이후 이달 13일까지 총 373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행 작가와의 만남, 컬러링 엽서 체험, 여행 브이로그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기대를 이어갈 연화정도서관, 한옥마을 도서관, 현책방도서관 등을 개관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책과 함께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야간경제 활성화·문화관광도시 연계 추진"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사진)는 18일 전주시청에서 가진 정책발표회를 통해 동부대로 건너편 아중역 인근에서 야간호수를 지나 기린봉까지 오른 다음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2.7km 코스의 한옥 케이블카 가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권역을 아중 호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한옥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한옥마을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운행 코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화려한 야간 경관과 테마 숲, 야간정원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아 전주는 자연스레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예정자는 600억 원에 달하는 건설



비 조달 방식으로 일정 비율 시민공모주를 도입해 사업비를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들도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이익금을 시중금

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정엽 예정자는 "한옥형 케이블카 운영은 관광객을 빠르게 유입시켜 이들이 즐기는 야간축제와 야간 불거기로 전주시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된다"면서 "황손이 참여하는 황실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전주를 외지인 발길이 북적이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에코시티 시민 불편 적극 해소해 나갈 것"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지난 17일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백석 호수공원 개발 등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백석 호수공원에 놀이시설과 체험 공간 마련,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춰 전주의 명품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송천동 에코시티가 인구 대비 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건립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9만㎡ 넘는 기무사 부지가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을 차지하면서 도



시계획 자체가 들어지고 에코시티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는 의견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에코시티를 개발하면서 교통과 학교 건립 등 정부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시민의 편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